

60년 여운이 남을 선교보고대회 되게 하신 하나님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 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요 2:9)

올 해가 한국에서 세계선교보고대회가 있는 해라는 것은 연초 총회 때부터 공유하였고, 그 후 2월부터 문제의식을 가지고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태프목자들은 팀별로 회의를 하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대회를 치를 것인가 의논했습니다.

선교사수양회와 함께 선교보고대회가 60주년 기념이라는 사실도 대회준비를 시작하면서 인지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니 소규모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코로나가 열어준 온라인도구를 사용하여 60주년 답게 제대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선교보고대회를 위해 기도할 때, 지난 60년을 정리하고 앞으로 60년 방향을 잡는 대회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60년은 인생으로 하면 환갑인데, 지난 60년을 잘 정리하고 앞으로 60년은 여운이 남을 만한 대회가 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2장 가나혼인잔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나혼인잔치에는 사람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는 천국산 포도주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여운을 남길만한 영적 방향과 은혜가 있는 대회가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또한 그러한 포도주는 마리아의 기도와 하인들의 순종으로 주님께서 만드신 것임을 알고 ‘마리아의 기도와 하인들의 순종’으로 대회를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우선 선교사수양회와 보고대회 주제를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논의하는 가운데 지난 60년간 외적인 모토와 타이틀이 있었는데, 이번 60주년 대회에서 향후 60년의 방향으로 내적 방향을 잡아야 할 때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선교보고대회 주제를 “그리스도를 알고자”로 잡고자 하였으나 이것은 선교사수양회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고 선교보고대회는 여러 한계상황과 코로나 상황, 그리고 크지 않는 가정교회가 많은 현실가운데 그들을 격려하기위해서 사도행전 28장 말씀이 적절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교사 수양회는 빌립보서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얻고자”하는 방향이 잡혔고, 선교보고대회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 “바울이 셋집에서”(행 28장)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 말씀의 방향은 참으로 모든 선교사님들과 UBF 형제자매들에게 힘이 되고 방향으로 적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을 불쌍히 여기시고 60년을 맞아서, 향후 60년의 가장 적절한 방향을 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들의 많은 논의와 기도와 준비 가운데 대회가 철저히 준비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매주 대회를 위한 줌으로 임시스텝미팅을 하며 논의하고 점검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선교사수양회와 선교보고대회 TFT를 구성하여 모임을 했습니다. 또한 대표와 총무(선교사수양회 책임)와 선교부장(선교보고대회책임)이 매주 2번씩 모임을 하면서 대회 점검을 했습니다. 현지대륙별 코디네이터선교사들과 함께 매주 목요일 논의와 기도모임을 했습니다. 한국의 대륙코디 목자들과 2주에 한 번씩 모임을 하였습니다.

세계선교보고대회 중심으로 경과를 정리하자면, 우선 홍보, 축하공연과 선교사소개와 60주년 기념 영상들과 축사, 음악, 인생소감 등에 대해서 의논하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먼저, 2편의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인터넷 상에 띄웠습니다. 축하공연은 한국에서 주최하며, 한국을 지난 60년간 사용하신 것을 감사하는 의미에서 한국적인 춤들을 하기로 했습니다. 60주년 영상들은 기존의 역사중심이 아니라 인터뷰 중심으로 참신하게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성서한국파트는 한국목자들의 인터뷰, 그리고 세계선교는 한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제자가 되어 선교사로 살고 있는 분들을 인터뷰하기로 했습니다. 선교사 소개는 직접 오지 못했던 선교사들까지 모두 소개하는 것으로 소개하는 의미에서 사진입장을 계획하였고, 60년 역사에 밀알이 되신 선교사들을 기리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는가 하여 순직순교사 소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후에 모임을 이끈 세계대표선교사들도 소개하는 것을 추가하였습니다.

축사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사무총장과, UBF와 함께 대학생선교단체의 쌍두마차와 같은 CCC대표, 그리고 미국 UBF의 추천을 받아 헛튼 칼리지 대학원장인 스캇모로 박사와 로잔 창립위원인 로버트 콜만 박사를 섭외하였습니다. 음악은 랜선찬양으로 하고, 하나는 한국센터들의 합창, 하나는 글로벌 합창을 하기로 했습니다. 인생소감은 각 권역을 대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7개를 다 하기로 했고, 다만 시간절약을 위해서 자막을 사용하며, 유튜브시청 효율극대점인 7분에 맞추어서 영상으로 제작하되, 단상에서 하지 않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아끼기위해서 자막작업을 하되,

최종 10개 언어(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 러시아어, 일본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광둥어, 불어/대회 이후 몽골지부에서 추가요청이 와서 몽골어 자막까지 총 11개 언어가 됨) 자막을 제공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상과 같은 기획을 이루기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든 마음이 지혜롭고 재능이 있었던 브살렐과 오홀리압(출 35:30-35, 36:1-7) 같은 장인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축하공연에 열정과 지혜가 있는 이제임스 목자(종로1)를 보내 주셨습니다. 성서한국 영상에 이사무엘(세종), 이진솔(관악5) 목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이사무엘 목자는 영화감독으로 세계 선교보고대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선교보고대회의 전체적인 영상미를 영화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진솔목자는 영상기술자로 2:30분 분량의 긴 영상을 전체적으로 다듬고 편집하고 자막입히는 모든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5.30일 전날이 군입대 하는 날이었는데 이 영상을 만들고 입대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세계선교보고대회 이후 20일 정도 뒷마무리를 하고 쉽도 갖도록 입대일을 연기해 주셨습니다.

또한 세계선교영상, 선교사소개 제작과 기타 축하영상 작업등에 이명철(광주3) 목자를 보내어주셨습니다. 음악영상을 위해서 임여호수아(종로2) 목자님이 수고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선교보고대회에 TFF팀에 조아브라함(순천), 김용석(용인), 문엘리야(종로7), 노요셉(울산), 조요셉(연희), 남다윗(공릉), 이스필전(종로2) 각 목자들이 홍보, 현장무대섭외, 번역 등에서 동역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대회기간 2개월여 정도 현지대륙코디네이터(국제본부 David Kim, 서요한, 중남미 조스테반, 유럽 강제임스/박엘리야, CIS 이다윗, 아프리카 서여호수아, 아시아 권바울, 오세아니아 이여호수아) 선교사님들이 큰 수고를 하였습니다. 매주 줌으로 모여서 상황을 나누고 조언을 받고 10개국 자막작업이란 큰 일을 이루는 데 브릿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특별히 번역과 자막작업이 쉽지 않는 작업이었는데 현지 대륙코디네이터 선교사님들과 번역팀 선교사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7개의 영상소감을 위해서 발표당사자와 돕는 선교사, 영상을 도와준 분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튜브 기능에서, 번역하여 시간대별로 기초자막스크립트를 만들고 그것에 기초해서 10개국어 자막을 입력하며 저장하면 자동으로 자막이 뜨는 기능을 알게 하시고 10개국 자막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 영상대회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알게 하신 놀라운 기술이었습니다.

대회를 섬기기위해서 섬기는 종들이 정말 하인들처럼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특별히 완전한

영상이 나오기까지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였습니다. 하인들이 빈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우고, 또 자기 부인하며 그것을 다시 연회장에게 갖다준 것처럼 여러 번 수고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명철 (광주 3) 목자는 7번 이상 고치는 작업을 말없이 순종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김갈렙 목자도 코피를 여러 번 흘리고 기절할 것같은 탈진상태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사고를 당하여 피를 흘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종들이 하인들의 순종을 주님께 드리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전세계 동역자님들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기독교문화사역을 하는 스튜디오를 알게 하셔서 적절한 장소에서 대회촬영을 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메시지를 크게 축사하셨습니다. 윤모세 선교사님이 2달여 준비한 메시지는 정말 잘 준비되고 성경적이고 좋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 촬영시에는 마이크 사정이 안 좋아서인지, 분위기가 조금 어수선해서인지, 청중이 없어서인지 압도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각 센터 현장에서 송출된 영상에 의하면 메시지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5배는 은혜가 증폭되는 것같았습니다. 그래서 2세들도 졸지 않고 정말 메시지가 은혜로웠다는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현장 녹화를 보았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영상을 축사하였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세계 모든 동역자님들이 간절히 마리아처럼 기도해서인 것으로 확신합니다.

마지막 완성단계에서, 전체적으로 예배 전 행사와 프로그램이 길다는 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고심하던 가운데 한국목자들의 인터뷰를 중간에서 맨앞부분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러자 전체적인 영상의 흐름이 달라지면서 감동이 있고 지루하지 않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한 목자는 신의 한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60주년 기념 세계선교보고대회를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벅새다 들판에서 남자만 5,000 명이 풍성히 먹고 남은 것처럼 넘치는 은혜가 있었던 대회였습니다. 실제로 현장대회때보다 2배 이상 많은 10,000명 정도의 유튜브 시청이 초기 시청횟수로 확인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목자, 선교사님들이 감사기도할 때마다 “넘치게 축복하셨습니다”을 감사한다고 공통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해외와 국내에서 많은 부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2시간 30분이라 긴 줄았더니 조금도 길게 느껴지지 않았고 평소 예배시간에 졸던 양들이나 2세들도 다 깨어서 들었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몇가지 점들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반영하여 다음 세

계선교보고대회를 할 때 참조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온라인의 장점을 알게 되었으니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온오프라인 병행해서 대회를 치루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60주년 기념 온라인 세계선교보고대회를 넘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은혜가 넘쳐서인지 선교사들을 돕기위한 코로나 구제헌금도 넘치도록 모아졌습니다.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선교사 44가정을 풍성히 돕고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울 명단을 작성해서 추가로 돕고자 계획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배부르고도 12 바구니가 남게 하신 것처럼 60주년 선교대회를 축복하셨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6:12절 말씀처럼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기위해서, 보고대회 영상들을 주제와 내용별로 나누어서 12바구니에 담은 역사, 즉 영상들을 나누어 보기 쉽게 만들어 유튜브에 다시 올려 홍보용으로 귀히 쓰이게 하셨습니다. 또한 여러 언론사의 기사와 인터뷰를 통해서 역사화하고 홍보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회를 치루기도 힘든 코로나 상황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평소 현장대회보다 더 풍성한 역사를 이루셔서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과 현지인 목자들이 항공료, 숙박비, 휴가 등의 어려움 때문에 오지 못하는 분들도 모두 참여하여 정말 저비용 고효율의 대회를 치루었습니다. 정말 요한복음 2장의 가나혼인잔치처럼 기쁨이 충만하고 긴 여운이 남은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이 셋집에서 어떻게 로마복음화를 이루었는 지를 배우고 모두가 큰 은혜를 받고 믿음과 소망가운데 일대일 역사를 섬기고자 하는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신 주님, 한계와 상황에 매이지 않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계속하여 우리 모임을 앞으로 60년, 복음전파의 DNA를 잃지 않게 하시고 한계에 매이지 않는 셋집 역사를 이루어 계속하여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으며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모임,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모임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계선교보고대회 준비 책임, 세계선교부장 김갈렘